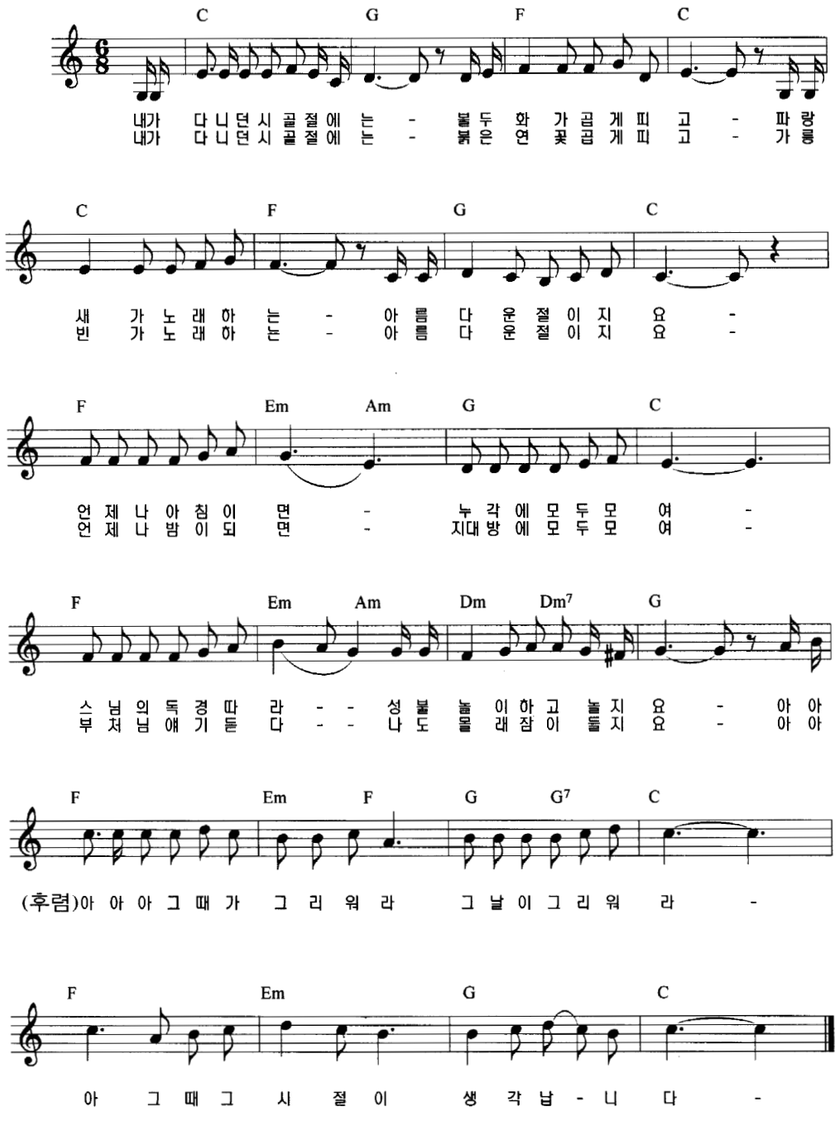
내가 다니던 시골 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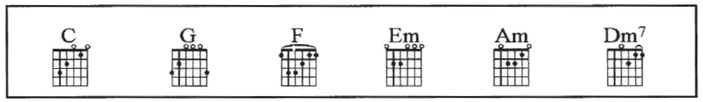
황확현 작사
정유탁 작곡



재미있는 반주를 위하여…

- 날마다 부처님 오신날! 날마다 좋은날!
-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의 표어는 "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"입니다.
  항상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
- 봉축행사 준비에 모두들 바쁘고 들떠 있는 5월인 것 같습니다.
  이럴 때 일수록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도 진정한 봉축위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것 같아 마음으로 부르는 찬불가 "내가 다니던 시골 절"을 소개합니다.

코드



리듬

- 이 달의 찬불가 『내가 다니던 시골 길』은 근작에 보기 드문 찬불가의 명곡으로 2분 왈츠풍의 6/8으로 가슴에 와 닿는 따뜻한 노랫말과 단아하게 흐르는 멜로디가 심금을 울리는 수작입니다.
- 부처님 오신 큰 뜻을 기리며 우리 모두 "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" 하는 「석가탄신일」이 되시길 바랍니다.

● 찬불가 문의 · 보급 - 좋은벗 풍경소리 : Tel.(02)717-6985 Fax.(02)703-7525
㉾121-070 서울 마포구 용강동 121-12 홍현빌딩 4층